

초록번호 : III-2-1

제 목	국 문	대구지역 지체장애인의 의료이용양상 및 관련요인		
	영 문	Physician Utilization and Its Determinants of the Physically Disabled in Taegu Cit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건엽, 박기수, 손재희, 감신, 천병렬, 박재용, 예민해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Keon-Yeop Kim, Ki-Soo Park, Jae-Hee Son, Sin Kam, Byung-Yeol Chun, Jae-Yong Park, Min-Hae Yeh Dept. of Preventive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 건 엽(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V) → 완료 예정 시기 : 97년 12월			
<p>1. 연구 목적</p> <p>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가의 복지사회 정책시행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되고, 의료보험의 전국실시로 국민의료의 질과 양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위험도군인 장애인의 건강대책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연구는 장애인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환시 의료이용양상을 파악하고, 의료이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가. 조사대상 대구시에 등록된 재가장애인 15,843명 중 6,869명에 대한 건강진단시 20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1,307명을 임의추출하여 대상으로 하였다.</p> <p>나. 조사방법 및 도구 가장 잘 알려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수요모형인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모형을 근거로 실정에 맞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4월부터 7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훈련된 조사자로 하여금 면접시 수정보완하게 하였다.</p>				

설문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최근 15일간 및 3개월 이상의 만성질환 이환여부와 의료기관이용 양상,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과 의료에 대한 믿음, 가족자원, 의료자원, 질병에 대처하는 방식 관한 문항이다.

3.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1307명의 15일동안 3개월이상 앓아온 만성질환을 제외한 상병률은 42.2%였는데 경제적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개월이상 앓아온 만성질환 이환율은 25.8%였고, 연령별, 경제적상태,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15일동안 상병자의 의료이용률은 53.4%였으며 성별, 교육수준, 건강실천행위,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진여부, 건강관심정도, 단골의료기관 유무, 의료보장상태, 평소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방문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3개월이상 앓아온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이용률은 81.9%였으며 결혼유무, 경제적상태, 직업유무, 건강관심정도, 평소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방문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15일동안 상병자의 의료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교육수준과 평소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방문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5) 3개월이상 앓아온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직업유무, 의료보장상태,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진여부, 건강관심정도가 유의한 변수였다.

6) 15일동안 상병자의 이용의료기관은 병의원(57.6%), 약국(32.6%), 한방병의원(7.9%), 기타(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이상 앓아온 만성질환 이환자의 이용의료기관은 병의원(75.9%), 약국(13.9%), 한방병의원(6.2%), 기타(4.0%)의 순이었다.

7) 15일동안 상병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냥 있으면 나올 것 같아서'(49.0%), '시간이 없어서'(15.5%), '돈이 없어서(15.1%)', '불편하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12.5%)등의 순이였고, 3개월이상 앓아온 만성질환 이환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94.2%가 '별증상이 없어서'로 대답했다.

4. 고찰

지체장애인의 15일간 상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의료이용률은 일반인에 비해 낮았다. 지체장애인은 평소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급,만성질환 시 의료이용을 하였다. 따라서 지체장애인도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게하는 보건교육 등이 있어야 하겠으며, 경제적이유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함 등의 이유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